

'다(茶)함께, 다(茶)같이 차차차'

익산문화원,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사업' 선정... 하반기 참여자 75세 이상 시민 10명 모집

익산시가 하반기에도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과 함께 어르신의 안정감 형성을 위한 다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문화원은 지난 9월 상반기 '다(茶)함께, 다(茶)같이 차차차!' 운영을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茶)함께, 다(茶)같이 차차차!'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차 문화를 배우고 다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익산문화원은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양한 나라의 차와 문화를 배우며 정서를 표현하고, 안정감 형성을 위해 차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다.

상반기 운영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다음달 6일부터 매주 금요일 7회 과정으로 다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75세 이상 시민 10명을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익산문화원(063-835-0120)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 수강생은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어 적적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으로 차에 대해 알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혼자 있는 노년층들이 이런 활동에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익산문화원은 지난 9월 상반기 '다(茶)함께, 다(茶)같이 차차차!' 운영을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재호 원장은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증진과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하반기 사업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문화원은 전통놀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과 현대화 체험 행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여름방학 주말 프로그램 운영 '호응'

백제왕궁박물관 '박물관 나들이' · 만경강문화관 '지구야! 미안해' 운영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과 가족의 특별한 여름나기를 위해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먼저 백제왕궁박물관은 지난 9~10일 오락형 체험 프로그램 '백제왕궁 1박 2일 박스-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를 진행했다.

'백제왕궁박물관을 찾은 문화외교 사절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

생 자녀가 있는 가족 11팀, 40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중국과 일본 등 11개국의 어린이 외교관이 돼 백제왕궁의 역사와 문화를 즐겼다.

특히 관람객이 모두 퇴장하고 비어있는 박물관에서 진행된 심야 관람과 이른 아침 왕궁리 유적에서의 해맞이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만경강문화관은 10일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지구야! 미안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알기를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소년들은 환경과 자연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자연을 비즈발로 표현하는 체험에 참여했다.

만경강문화관은 오는 17일에도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지구야! 미안해'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859-788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놀이 한마당 '강 건너 마루달 모험'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10~11일 이틀간 우리놀이 마루달에서 저승을 테마로 한 전통놀이 한마당 '강 건너 마루달 모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저승으로 떠나는 '삼도천(三道川) 건너기' △가족 대항 줄씨름 대결 '상처지옥' △집문 뽐기를 통해 진실을 고하는 '거짓

지옥' △2인3각 비석치기 '약속지옥' △마루달이 체험 '서천놀이발'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당에서 전통놀이 교육을 받은 놀이강사가 운영진으로 함께 했다.

행사는 시간당 4팀씩 현장 예약제로 진행됐다.

김도영 원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전통문화 행사를 준비했다"며 "전당에서 운영하는 우리놀이 마루달에서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당 누리집(ktc.or.kr)을 참고하거나 우리놀이 마루달(063-281-154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관광협의회, 로컬디자이너 양성 나선다

'여행 드로잉 · 굿즈 제작 강좌' 사전 홍보특강 개최... 강좌 참여자 선착순 모집

(사)진안군관광협의회는 지난 9일 진안읍 사통팔달센터에서 로컬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여행 드로잉(그림) · 굿즈(기념품) 제작 강좌' 사전 홍보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드림스카이 이준천 작가를 초청해 진안군 문화관광자원을 담은 드로잉으로 시작을 알렸다. 특강은 2024 진안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여행드로잉을 통한 스토리텔링, △여행드로잉과 굿즈제작 방안 소개, △여행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안군 관광인프라와 가능성 △드로잉 체험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했다.

여행드로잉 · 굿즈 제작 강좌는 24일까지 1기(9월)와 2기(10월)로 나누어 총 20명(각 기수 1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 장소는 마이산 여행자센터(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60)이다.

1기 교육과정은 9월 5일 개강하고, 2기는 10월 10일 개강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3주간 4회차로 진행된다. 1·2기 교육수료생의 작품은



진안군 관광굿즈(기념품)로 시범 제작되어 미니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진안군관광협의회는 여행콘텐츠 제작과정 강좌를 통해 지역디자이너 양성 및 활동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진안군관광협의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구글폼 링크(<https://qrcn.de/bfGXca>)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070-8274-8630)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관광두레 PD · 주민사업체 추가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16일까지 접수... 지역 특색 살린 관광 사업 창업 · 운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6일까지 전북 관광두레 PD 3명과, 주민사업체 11개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사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먼저, 관광두레 PD는 지역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육성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창업과 성장 단계까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밀착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자생력 있는 관광분야 주민공동체 발굴 및 육성활동에 관심 있는 만19세 이상 도민이며, 정읍시, 장수군, 진안군 등에서 활동할 각 1명씩 총 3명을 모집한다.

선정된 PD에게는 교육과 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월 12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어, 주민사업체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뤄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모집대상은 숙박, 식음, 기념품, 주민여행사, 체험 등 관광 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3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로 신규, 기존, 협력 등 3개 부문으로 모집한다.

신규 부문은 '전북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대상이며, 기존에 기존에 참여한 업체 대상, 협력 부문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두레 사업을 졸업한 정수군, 순창군, 고창군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지역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두레 사업에 선정된 전주, 완주, 임실군을 제외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정수군, 진안군 등 11개 지역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3개월 동안 지원하며, 선정지원금은 역량 강화,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 및 세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재단 누리집(bc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